한·프 공군 최초 연합공중훈련/ 추모비행

'정전협정 70주년(27일)'을 이틀 앞둔 7월25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하늘에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프랑스 항공우주군 라팔(Rafale)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등장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47명의 6·25전쟁 프랑스군 참전용사가 안장돼 있다.

양국 전투기는 공원 상공을 비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프랑스군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렸다. 한·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추모비행은 연합공중훈련 중 펼쳐졌다.

양국 항공전력의 연합공중훈련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방어제공(DCA) 훈련

공군은 8월 21일 적 항공전력의 복합 침투에 대응하는 방어제공(DCA)훈련으로 UFS 연합연습의 문을 열었다.

훈련에는 5세대 전투기 F-35A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 등이 동원됐다.

방어제공은 적 항공전력의 공격·침투 때 아군 공중·지상 전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능한 한 원거리에서 탐지·요격하는 임무다.

훈련에는 20전투비행단을 포함한 12개 공군 부대가 참가했다. 특히 비행 부대는 아군과 적군으로 역할을 나눠 실전성을 높였다. 다수의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방어대대는 적 항공전력 추적 임무를 맡았다.//

한미 공군, 중원기지서 6차 쌍매훈련

한미 공군이 올해 여섯 번째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성공적으로 마쳐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한미 공군은 올해 아홉 차례의 쌍매훈련으로 전시 작전 능력과 팀워크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군19전투비행단은 8월9일 "예하 162전투비행대대와 미 공군8전투비행단 80비행대대가 지난 8월 7~8일 '23-6차 쌍매훈련'을 중원기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쌍매훈련은 1997년부터 한미 공군이 함께 실시해 온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이다. 양국 전투조종사들은 서로의 기지에 교차 전개해 전투 기량을 연마하고, 우호를 증진한다.

훈련에는 두 비행대대 F-16 4대씩 총 8대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5세대 전투기 F-35A 첫 한미 연합 '쌍매훈련' 참가

우리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가 처음으로 한미연합 '쌍매훈련(Buddy Squadron)'에 참가했다.

한미 공군은 이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공군은 "지난 7월24일부터 닷새간 공군17전투비행단(17전비)에서 우리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8전투비행단 F-16 전투기 등 항공전력 10여 대가 쌍매훈련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미 공군은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GBU-31 합동정밀직격탄(JDAM) 실사격 훈련을 하며 양국의 연합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했다.//

1전비, 206전투비행대대 창설

공군1전투비행단(1전비)은 10월4일 206전투비행대대 재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6대대는 F-5E/F 전투기를 운용하며 최정예 전투조종사 양성과 전시 영공방위 및 후방근접지원작전 임무를 수행해 온 부대로, F-5E/F 퇴역에 따라 2021년 12월 공식적으로 작전을 중단했다.

그러다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블록(Block)2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206대대 재창설이 결정됐다.TA-50은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레이다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용 항공기다.

이번에 대대가 도입하는 TA-50 블록2는 현재 활용 중인 TA-50의 무장·소프트웨어 등을 향상한 최신 버전이다.

이날 재창설식은 개식사, 명령 낭독, 부대기 수여, 시상 등 순으로 진행됐다.//

16전비 202대대, 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6전투비행단(16전비)은 8월1일 예하 202전투비행대대의 무사고 비행 7만 시간 달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대대의 7만 시간 무사고 비행은 2003년부터 20년간 수립한 기록이다. 대대는 애초 F-5E/F 전투기를 운용하다 2016년 3월부터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을 전력화해 중북부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16전비 창설 47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16전비는 1976년 8월 1일 군 현대화 및 공군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공군기지 최초로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창설됐다.//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은 8월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와 북 핵·미사일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3국의 신속한 협의를 도모하는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가지 합의문서를 도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례 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첨단 항공우주·방산기술 축제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3 (서울 ADEX 2023)'이 10월 17~22일까지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서울 ADEX는 매 홀수년 10월에 열리고 올해가 14번째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했고, 2009년부터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했다. 실내전시는 2320개 부스에서 관람객을 맞이했고, 야외전시 품목도 항공기 47종 55대와 지상장비 40종 40대 등에 이른다.

또 55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해외 군 대표단이 방문하고, 일반관람객은 약 13만 명이 찾았다. 특히 행사에서는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실물 기체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야외전시되고 시범비행을 선보였다.

미군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F-22 전투기와 EA-18G 전자전기 등 핵심 항공자산과 주한미군 지상장비를 서울 ADEX에 처음 전시했다. 행사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20일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관람일(Business Day)과 21~22일 일반관람일(Public Day)로 구분해 진행됐다.

전문관람일 기간에는 30여 개의 세미나·심포지엄·사업설명회도 열렸다. 일반관람일 때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축하비행과 육·해·공군 의장대 시범 등을 선보였다.//

2023 서울안보대화

세계 각국의 국방관료·국제기구 대표단과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 '2023 서울안보대화(SDD)'가 10월 19일 폐회식을 끝으로 2박 3일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2회를 맞은 올해 SDD에서는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 진단, 고도화된 북핵 위협,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등 안보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본회의 첫 번째 세션인 '고도화된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동북아 지역과 국제 안보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정책적 과제가 제시됐다.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도전요인도 동시에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본 회의 두 번째 세션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사항도 논의했다.

또한 해양 안보와 사이버·우주 안보에 관한 토론, 최근 국방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위산업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적용에 관한 토론 등을 이어가며 국제적 합의와 규범의 도출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7월 27일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용사 62명 한 분 한 분을 직접 영접했으며, 참전용사들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사령부 의장병들의 호위 속에 입장했다.

기념식은 참전국기 및 유엔 참전용사 입장, 여는 공연, 국민의례, 주제 영상, 참전국 대표 인사말, 정부포상, 기념사, 감사 영상, 기념공연, 엔딩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엔참전국 정부대표단, 참전용사와 유가족,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2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유엔군 위령탑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1978년 건립됐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주년 광복절인 8월15일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산전체주의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물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민주화로 이어졌다"면서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나토(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열린 경축식에는 지난 8월13일 영주 귀국한 오성규 애국지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위탁병원 이용 가능

10월부터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거주지 인근 보훈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이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10월 3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은 75세 이상만 가능했다.

보훈부는 위탁병원 이용 연령 폐지와 함께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탁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10월부터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참전유공자 90%,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60%의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비대상이다. 또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매하면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2000원, 무공수훈자 16만 원) 내에서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드론작전사 창설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우리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가 9월 1일 창설됐다.

우리 군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드론작전사를 중심으로 10배의 무인기를 보내 응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적 도발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드론작전사 창설 축전에서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받는 부대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거행된 드론작전사 창설식에는 군 주요직위자 및 관계

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대표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 명령 낭독, 창설 경과보고, 부대기 수여, 대통령 축전 낭독, 합참의장 훈시, 사령관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미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우리 군은 8월 16~18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 21~25일 정부연습인 을지연습(21~24일)과 연계한 1부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부 연합연습에서는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점검·숙달했다. 특히 민·관·군 실제 훈련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200여 건 40만 명이 참가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230여 건, 58만 명이 참여했다. 8월 23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이 6년 만에 시행되기도 했다.

군 단독으로 진행되는 2부 연합연습은 8월 31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연습은 육·

해·공군, 해병대가 참여한 가운데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이뤄졌다. 주한미군과 미 우주군도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통한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했다.//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국군 장병과 주한미군,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진 하모니가 용산의 가을밤을 장식했다.

국방부는 9월 15일 저녁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SBS와 함께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국군의 날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건군 75주년을 맞아 장병 사기를 진작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한미 합동군악대를 비롯해 국악인 송소희, 가수 박정현·인순이·브브걸·

프로미스나인·라포엠 등 200여 명이 출연, 자리를 채운 육·해·공군·해병대 장병, 주한미군을 비롯해 시민 등 420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눴다.//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현시하기 위해 7월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와 함께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전개시켰다.

이날 NCG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태조정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핵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전개해 필요한 전략적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NCG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

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 및 소통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구직급여 50%까지 확대 추진

국가보훈부(보훈부)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 비대상자)에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현재 50·70만 원에서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의 50%인 99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운용되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이러한 지원 방안들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10월 9일 밝혔다. 현재 중기(5~10년 미만)· 장기(10년 이상)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최대 198만 원)의 25·35% 수준인 50·70만 원을 최장 6개월까지 전직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전역 후 수입이 없는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은 기업이 원하는 취업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비교해 금액과 지급기간이 짧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훈부는 이를 각각 10% 인상해 55·77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출했다. 또 최장 6개월인 지급기간도 중기복무는 최장 7개월, 장기복무는 최장 8개월까지 늘리는 개정 법률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전남권 국립호국원 부지 '장흥읍 금산리 일원' 최종 선정

국가보훈부는 9월 10일 전남권 국가유공자의 근접 안장 서비스를 위한 '전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부지를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전남권 호국원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497억 원이 투입돼 2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에는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공간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문화 체험 공간 △지역 주민과 참배객을 위한 휴식·치유의 공간 등이 마련된다.

보훈부는 2025년까지 설계, 인·허가, 토

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2026년 착공한 뒤 2029년 11월 개원할 계획이다.//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반영 의무화 입법예고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대군인법)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다.현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헌법·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 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개정법률안에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준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장 6개월간 지급하던 전직지원금을 중기복무자는 최장 7개월까지, 장기복무자는 최장 8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밖에 개정법률안에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군 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자체 의료기관 진료근거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보훈보상·지원 대상자도 고속열차 할인·지하철 무임 혜택

앞으로 보훈보상·지원 대상자도 고속철도, 지하철, 고궁, 국·공립박물관과 양로·양육지원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7월 18일 시행된다고 7월 17일 밝혔다. 올 6월 말 기준 보훈보상 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유족 2095명), 지원 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유족 572명)이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지원 대상자(본인)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KTX·SRT 등 고속열차는 연 6회 무료, 7회 차부터는 50%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지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등의 시설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10월 항공일에 대한 추억

장호근 (예 소장, 공사 17기,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회(현, 항공우주력연구원) 초대 연구위원장 역임)

나는 해방되고 1년 후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태어났다. 청와대(당시 경무대)와 지금의 국무총리 공관(당시 이기붕 국회의장 별관) 사이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다. 나는 그곳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다. 나의 어린 시절 10월에는 학교 안 가도 되는 노는 날이 많아서 좋았다. 10월 1일은 항공일(공군의 날), 3일은 개천절, 9일은 한글날, 24일은 유엔의 날 모두 공휴일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1950년대 중순 무렵), "땅을 보면 엄복동, 하늘을 보면 안창남"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노래를 흥얼거렸었다. 엄복동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선수를 제압한 자전거 선수였고, 안창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비행사였다. 바다를 못 보고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동경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이 공군의 조종사인 것도 알게 되었다. 김신이 어린 우리에게 영웅 된 것은 그가 한강 다리 밑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서 통과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친구 누구도 본 적이 없어 자신 있게 사실이라고 우기지는 못했다. 당연히 나도 그랬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다.

L-4의 편대비행 모습 (공군본부, 『공군사』, 2010.)

김신 장군(제6대 공군참모총장)은 그의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2013년)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설명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에게 비행기를 넘겨주었다. L-4였다. 이 비행기는 손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시동을 거는 기종으로 공중에서 낼 수 있는 속도는 일반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준이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 주변을 날아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한강 모래사장을 저공 비행할 때 한강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다리 밑을 그대로 통과했다. 대한민국 마크를 단 비행기를 타고 비행한다는 기쁨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한 번 통과하고 나서 다시 두세 번 더 통과했다. (중략) 이를 목격한 김정렬 장군(초대, 제3대 참모총장)은 불군기 비행으로 나를 질책했고 한 달간 비행 금지의 처벌을 내렸다. (중략) 이러한 사실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몇 해 전, 『백범일지』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 참석했을 때, 한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옛날 비행기 타고서 진짜로 한강 다리를 통과했어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이는 감격한 얼굴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이런 일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나는 하늘을 좋아했다. 특히 나는 "항공일"이 좋았었다. *(10월 1일은 1949년에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해 창군한 날이다. 그 후 1956년에 10월 1일이 육·해·공군의 날을 통합한 국군의 날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기억으로는 10월 1일은 공군의 날이 아니라 "항공일"이라고 했었다.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바 없는 어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10월 1일은 항공일이었다. 비행기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날에는 한강 백사장에서 전투기들이 실제 폭격을 하는 실무장 투하 행사가 있었다. 김포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이 한강 백사장에 네이팜 폭탄을 투하해 표적을 순식간에 화염에 둘러싸이게 했다. 그리고 요란한 굉음을 내며 로켓 포도 발사하고 기총 사격을 했다. *(정부는 1982년 한강 종합 개발을 시작했다. 지금 이촌동 부근의 고수부지도 1980년도 이전에는 광장히 넓은 백사장이었다.)* 강 건너 명수대(明水臺)의 관람석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귀빈들이 관람했다고 한다. 명수대는 지금 흑석동 부근으로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의 별장이 있던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좋은 언덕이었다.

나는 어렸었지만 이런 실제 사격을 보기 위해 한강 백사장에 가곤 했었다. 그때는 청와대 옆 효자동에서 한강이 보이는 원효로까지 전차가 다니던 시절이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효자동에서 전차를 타고 원효로까지 간 후 걸어서 백사장까지 갔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시가행진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강에서 수많은 공군 비행기 편대들이 공중분열을 했고 이어서 에어쇼도 있었다. 그 후에는 지금의 여의도 공원 자리인 5·16 광장 상공에서 공중분열 행사를 했다. 그래서 커서도 나는 10월을 기다렸었다.

38선을 돌파 기념 목비(木碑)를 세우는 김백일 제1군단장 (출처: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2005)

10월 1일이 항공일에서 국군의 날로 변경 제정된 것은 이런 이유였다. 1950년 10월 1일 한국 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5군단 제3사단(백골 부대)이 선봉으로 철원에서 38선을 돌파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56년에 국군의 날이 되었다. 따라서 이날은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고, 국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날이 되었다.

Alliance for the Future
한미동맹 70주년

(출처: 외교부)

그러나 나는 어린 날의 추억 때문에 지금도 10월 1일을 계속 "항공일"로 기억하고 있다. 아니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

그 후 공군에서 전역한 후에야 10월 1일이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던 기념해야 할 날 임을 발견했다. 국가안보에 관련 문헌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1953년 10월 1일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워싱턴에서 조인된 날이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한국과 미국 각지에서 여러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4일 유엔의 날 말고도 6·25전쟁 중에 유엔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뜻 있는 결정을 한 날이 또 10월에 있었음도 알게 되었다. 바로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의 '10·7 통한(統韓)·결의'였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승리의 문턱에 서게 되었으나 38선을 넘어 이북으로의 진격은 안보리의 결의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전쟁 발발 직후 안보리 결의는 단순히 침략자를 38선 이북으로 격퇴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해야만 했다. 따라서 유엔으로서는 정치적으로 38선 돌파문제와 한국의 통일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의 주도로 마침내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의 38선 월경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유엔 주도하에 한국의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10·7 통한·결의'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군사적 목표인 북한군의 격멸과 정치적 목표인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유엔 결의를 모두 확정하였다. 그리고 '통한 결의' 이틀 후, 10월 9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했다.

"38선의 유엔군" (출처: Jon Halliday & Bruce Comings, Korea: The Unknown War, 1988)

10월은 이렇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많은 기념일이 있다. 하지만 나는 10월의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한강에서 있었던 옛 생각을 하곤 한다. 공군 예비역이라 유별나게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제 흑석동 명수대 부근은 전철역과 아파트 단지로 모두 변했지만, 올림픽 도로로 이 부근을 지날 때, 그리고 명수대(현, 효사정) 언덕 아래 큰길의 효사정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도 명수대 언덕을 유심히 쳐다보곤 한다.

이런 모든 일은 70여 년 전의 '항공일'을 회상하는 서울 토박이(늙은 보라매)의 아련한 추억이다. 올해는 건군 75주년으로 국군의 날 행사에 서울 시내의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부활했다. 여기에 더해 굉음을 내며 서울 도심 하늘을 날렵하게 솟구치는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보니 더욱 그렇다.//

삶의 중심축(中心軸)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 토브넷 회장)

나이가 들면 더 너그러워지고, 자비로워지며, 이해해주고, 양보와 희생을 더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더 예민해지고, 감정적이며, 짜증이나 화를 더 자주 내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에도 늘 평온함을 유지하며 어른스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삶의 중심축'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바퀴가 빨리 돌아가더라도 고정된 축은 언제나 변함없이 중심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들은 세상의 급변하는 풍조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

나이 들수록 '삶의 중심축'을 갖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아래 열거된 몇 가지만이라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 지리라 본다.

첫째, 갑(甲)질(Power Harassment)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계급인줄 알고 젊은이들에게 훈계나 충고를 일삼으면 싫어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지시를 하면 즉각 거부반응을 보인다. 과거 성공담이나 좋은 소리도 반복하면 명언이 아니라 망언으로 들린다.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1918~2018) 목사가 전한 '사람은 부족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다. 그야말로 행복의 출발점이다'는 경구를 새겨가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둘째, 화를 컨트롤해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날 일이 생긴다. 화를 내면 독성물질인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전두엽이 경직돼 이성을 잃기 쉽다. 나이 들어 화를 내면 실수하거나 사고를 당하기 쉽고 건강까지 해친다. 화를 자주 내면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멀어진다.

셋째, 배우자·자녀와 잘 지내야 한다.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배우자는 수십 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삶을 함께 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베푼 일에는 항상 감사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은 사심 없는 사랑이기에 자녀의 자립과 독립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넷째,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 나이 들어 고집 부리면 왕 따 당하기 쉽고 본인만 외로워 진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기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경청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 공자(BC 551~479)도 '가고 또 가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행하고 행하는 가운데 얻음이 있다'고 논어에서 충고하고 있다.

다섯째, 늙음, 질병과 친해 져야 한다. 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젊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이기심을 경계해야 한다. 육체적으로는 몸의 최소 기능과 오감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건강한 것이다. 병도 우리의 일부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오는 게 인생이다. 병을 고치려면 병과 친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병고를 양약으로 삼으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